

# 중국 고대 당대(唐代) 민간 조경[私家園林] 연구

- 출토된 명기(明器)와 낙양명원기를 중심으로 -

박 경 자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겸임교수)  
(문화재 전문위원)

## I. 머리말

## II. 유물과 문헌에 표현된 당대 민간조경

- 당대 명기 건축군의 경관구성
- 고문에 표현된 경관 구조물
- 누정 명칭
- 낙양명원기의 경관 구조물

## III. 맺음말

## 국문 요약

당대(唐代)의 출토유물인 명기와 낙양명원기를 중심으로 당대의 귀족 정원을 고찰한 결과, 산수경관인 가산과 연못이 정원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 누정을 짓고 화목을 심었다. 가산은 치석첩산(置石疊山)하고, 동굴을 만들었고, 명기의 석가산은 산지산세(山池山勢)는 험준, 층만첩장(層巒疊嶂), 녹색이 깔린 자리와 같고, 새들이 혹 산간에서 노래하고, 연못 호반에서 물을 마신다 라고 표현되었다.

연못은 착지인수(鑿池引水)하고 수계가 발달하였으며, 누정 건물로는 청(廳), 당(堂), 관(館), 정(亭), 대(臺), 누(樓), 각(閣), 사(榭) 등이 있다.

조경 식물로는 대나무, 연꽃, 모란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향나무, 소나무, 회, 잣나무, 전나무, 오동, 가래, 복숭아, 오얏, 매화, 살구, 국화, 칩덩쿨 등을 식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중국 당대의 원림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뛰어난 원림 양식으로 원림발달의 전성기를 구가하였고, 문화교섭에 의해 동시대의 통일신라의 민간 특히 귀족의 주택 정원도 사절유택(四節遊宅) 등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 조경 발달사에서 전성기에 해당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주제어 : 당대(唐代), 명기(明器), 낙양명원기, 통일신라, 귀족 정원

## I. 머리말

중국 문화사에서 당대(唐代)는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고 그 중 원림(조경)의 발달도 진(秦), 한(漢)의 원림의 생성기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여 화려하게 꽃피운 시기였다. 현재 남아 전해지고 있는 당대의 출토유물인 명기(明器)를 통해서 그 당시의 조경양식을 직접 탐구할 수 있고, 또한 많은 관련 문헌의 연구에 의해서 당대의 조경양식을 규명할 수 있다.

동양에서 산수는 곧 경관과 동일어이며 동양의 경관은 산과 물이 중심이 된다. 이것을 인공적으로 평지에 조성하여 자연을 표현할 경우는 연못을 파고 가산(假山)을 만들어서 자연 즉 산수경관을 조성했다. 여기에 정자 등의 건물을 짓고 화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경을 한 것이다.

당대의 출토명기에서 정자 건물과 석가산(石假山), 수지(水池) 등을 고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관 구조물을 중심으로 관련된 문헌을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당대의 민간 특히 귀족 주택 정원 양식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적, 문헌 등의 사료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고대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귀족 주택 조경 양식을 유추해 보려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 II. 유물과 문헌에 표현된 당대 민간조경

### 1. 당대 명기 건축군의 경관구성

1959년 서안시 서쪽 교외의 당묘(唐墓)에서 출토된 명기(明器)로서, 한 조(組)의 백색 담장, 녹와(綠瓦), 홍주(紅柱)의 건물 모형이다. 진입 대문, 방정(方亭)을 통과하면 처마 나온 것이 깊고 멀고, 건물은 전전(前殿)과 연결되고, 원(院)내의 양상(兩廂) 대칭된 공랑(空廊)이 있다.

후원(後院)은 혈산식(歇山式) 정전(正殿), 전(殿) 처마에는 비침두공(飛檐斗拱), 기세가 활달하고, 정원(庭院)내 팔각정과 삼채산지(三彩山池 석가산과 연못)가 있다.

산지산세(山池山勢)는 험준, 층만첩장(層巒疊嶂 중첩한 산과 중첩한 봉우리), 녹색이 깔린 자리와 같고, 새들이 혹 산간에서 노래하고, 연못 호반에서 물을 마신다.

각기 정원군이 잘 조화되어 있고 포국이 엄정하며 이것은 당대 귀족 호화 저택의 축소판이다.



사진 1. 당대 귀족 저택 명기(明器)

## 2. 고문에 표현된 경관 구조물

여러 기문(記文) 등의 고문헌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 (1) 치석첩산(置石疊山 돌을 놓아 산을 쌓음)

뜰에 높은 위태로운 돌이 솟아있고 그 특수한 모습들이 실로 이름 붙이기 어렵다. 산을 대고 있는 돌들은 짐승과 같은가 의심하였고 물속에 세운 돌은 혹시 고래를 닮은 것인가 생각되기도 했다. 구름 낀 봉우리는 건물 끝 구름모양 산봉우리(동자기둥)를 인해서 일어났고(여름 산에는 구름이 많이 끼었다), 연꽃 그림자는 처마에 들어와서 피었다(석가산에 심은 꽃이 처마에 피어있다).

지름길을 도니 위태로운 봉우리가 가까이 있고 언덕이 무너져 다리가 완전히 놓이지 못했다.

용기종기 모인 돌은 처마에 당해서 기대어 있고 매달린 샘물이 찬물을 건너서 난다(인공폭포를 만들었다).

조각한 봉황새와 서려있는 용이 귀족 건물(좋은 건물)을 능가했고(건물 위로 솟아 있다) 파놓은 논물과 쌓은 돌들은 봉래산이 솟아있다.

맑은 못과 하얀 거울에는 석가산이 높이 솟아 있고, 온갖 골짜기와 많은 바위에는 푸른 이끼가 많이 끼었더라.

대가산지(산)를 찾아서 석벽에 이 시를 썼다.

석가산의 골짜기, 동굴 속에는 모습이 아름답고 날 것 같은 기분이고 뜰 앞에 산이 있더라.

능히 관청의 정자 안에다가 이 산과 다못 숲을 설치했더라.

한 지아비가 수레를 타고 오자 세 개의 강이 눈앞에 가까이 왔고 열 손가락으로 돌을 용기종기 모았더라.

못 산이 지름길에 기대어 있더라(오솔길).

비스듬히 작은 다리를 세웠더니 (못 가운데 섬을 만들고 작은 다리 설치)

멀리에서 산돌을 옮겨왔으니 샘물소리가 나더라.

현보(현종 후기)에 남조소사구(관청)에 있는 예숙이 나의 어머니 대신 당 밑에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들었다.

한 삼태기 흙으로 한 자가 차ვენ 흙을 쌓는다. 썩은 나무를 대신했다.

그 곁에 자죽을 심었으니 몇 개 봉우리는 아주 아름다워서 완전히 속세 밖의 운치가

있었다.

괴이한 돌을 모아서 험준한 산세를 만들었으니 기이한 나무들이 돌을 안고 있고 꽃떨기에 물이 배여 있다.

나무는 깊고 등녕쿨 늙어 있는데 대나무 팽 둘러싸여 있고, 돌로 된 절벽 2,3중 거듭 쌓여 있는데 비단같이 푸른빛이 아롱지고 있다.

하물며 비가 개인 경치로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뒤에 많은 바위, 골짜기 사이에 있는 것 같다.

마침내 높은 숲에서 오고 돌을 쌓아서 그 좁은 골짜기 막아서 우지(못)를 만들고(자기가 어리석다 정원에 우지 명칭), 사는 집 북쪽 5발짝쯤 걸음 진 층층으로 생긴 낭떠러지를 짐겨해서 돌을 쌓았다.

대체로 그치는 바가 하루 이틀 되었더라도 의례 한 삼태기 돌을 부었다.

돈대를 만들고 주먹만한 돌을 모아서 산을 만들었다. 멀리서 바라보니 늘 높게 솟아 있고 가까이 와서 보면 괴이한 모양들이 높다.

겨우 높이 8,9척 밖에 안 되는데 보기에 형세는 천길 만길 같다. 텅 빈 것은 화양동(굴) 같고 중첩된 것은 광산의 뿔부리와 같다. 돌을 쌓기를 높직하게 했다. 산 8부 능선과 같고, 석가산을 만드니 먼 산에 가고 싶은 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여산(남방) 생각해서 만든 것이고, 일찌기 낙양에서 거주했는데 그리워 꿈에서 깨어서 드디어 벽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십년이 걸렸다.

푸른 것 모으고 또 포개기를 자나 깨나 생각했다.

고요한 방은 일찍 높게 한 것을 도모하고, 그윽한 정자 다시 기이한 것을 창조했다.

옷을 저당해서 토지 매매가를 치르고 날짜를 삼아서 공사를 운행할 때에 손 가는 대로 중첩된 산을 이루었고 마음 내키는 대로 가리워지고 일그러진 것을 만들었다.

나무 뿌리가 서려있으니 정원 높은 것 놀라고, 정수리가 높이 솟아서 처마가 낮은 것을 의심했다.

땅을 누르는데 어찌 무겁다고 말하라 (땅은 아무리 많은 것도 무겁다 하지 않는다). 처마에 닿도록 쌓아올린 위태로운(높은)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거령(황하수의 신)은 어떻게 처마 산을 짜겠는지-황하수가 화산을 관통해서 흘렀다.

진나라 가혹한 정사는 기꺼이 가뻐이 옮길 수 있으리라.

저물지는 풀에 끼어 있는 연기가 접촉되는 것 느낄 수 있고, 추울 적에 대숲에서 일어나는 바람소리 듣게 된다.

남해는 고색창연한 것이 맑게 보이고 엉겨져 불어나는 것이 합당하다.

나의 낙천에 있는 자기 집이 춘량가에 있는데 많은 대나무 있고 붓물 한 자락 있다.

관직 그만 두던 날에 원숭이 한 마리, 새(월조우) 한 쌍과 첩석 몇 조각을 가지고 장차 낙양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이윽고 원숭이와 새와 더불어 같이 있게 되면 이 세상일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과도(물의 양)를 헤아려서 옛 규모보다 더 넓혔더라. 돌을 첩첩히 쌓아올렸는데 이 시냇물을 통하고, 아무 일없이 영웅인재를 정원에서 은퇴해 살게 했더라. 다시 태호석인 천개 덩어리 되는 많은 돌을 사다가 구름 낀 푸른 높은 산을 중첩되게 만들었다.

### (2) 착지인수(鑿池引水 못을 파고 물을 끌어 들임)

낙양에 있는 임원이 좋다는 것 스스로 알았다. 강남에 있었을 때 본 경치와 (암암리에) 비슷하더라.

붉은 홍입으로 향기나는 밥을 덮었고 자린(자색 비늘 잉어) 얇게 썰고 나물을 삶아서 잔치를 벌였다.

비가 뱃밭(배 선창을 가린 밭)에 떨어지는 소리는 배 앞에 새(물귀신 몰아낸다) 그린 배(청작방)에 있었던 때와 같았다.

물결이 꽃그림자가 흔들 흔들임이 흰 연꽃이 핀 연못이더라.

마시던 술잔 멈추고 소주에서 온 나그네에게 물으니 어떠하냐 오송강(소주) 위에서 있을 때와 어떠하냐(못하지 않다 어떤 곳이 더 좋더냐).

### (3) 정사누각(亭榭樓閣)

좋은 집을 정(亭)이라 하니 넉넉하게 여기는 이름이다.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는 겨우 비바람을 막고 때에 따라서 몸에 적의하게 할 뿐이었다. 여름에는 겨울 방에서 자고(덥게 자고) 봄에는 가을 문으로 경유하게 되어서 추위와 더위를 혹독히 받는다. 그것을 능히 감수할 수 없다. 중고 때에 미치자 바로 누관대사(樓館臺榭) 같은 것이 있게 되었다(사는 집 이외에는 누관대사). 평소에 살던 건물과 다르다. 여기에 의거해서 춘하를 시원하게 하고, 가슴이 막혀 답답함을 후련하게 씻어내게 한다.

누각(樓閣)은 거둬 구성해야 한다(이중구조). 공사비용이 배나 들고 관(館)은 두 번 이루어서 근로가 많이 들었다. 누대(樓臺)는 관축이 번거롭고 사(榭)는 설치하는 난간을 더 가설해야 하는데 누대관사를 지으면 이목 창달하게 하고 (먼데를 바라보고 물, 바람, 흙 소리, 정신기운 활달하게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물자를 헤아린다면 곱함이 있다.

근대에는 옛것을 이어받아 묘한 것을 증가하는 것으로는 정자를 짓는다.

정은 사람에게 도움 주는 것이 누관대사와 같고, 사람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은 누관대사와는 다르다. 거둬 짓고 두 번 이루어야 하는 쓸데없는 비용과 관측과 난함을 추가 설치 처리해야 것도 없어서 일은 간략해도 용도가 넓으니 현인군자들이 정을 많이 건축했다.

그것을 건축할 때는 모두 경치 좋은 곳을 선정한다.

#### (4) 화목동물

망천별업 기문 : 왕유

문득 산중으로 가서 감은사에서 쉬었는데 산승과 더불어 밥을 함께 먹고 떠났다. 현패(강)를 건너니 맑은 달이 성곽을 비추고 있었다.

밤에 하자강(산 이름)을 올라가니 마천수가 쿵쿵 흘러내리고 달과 더불어 위아래가 되고 있다.

가을, 겨울 산(차가운 산)에서 멀리 비추는 불이 숲 밖으로 반짝 거리고 있다.

깊은 골짜기에서 차가운 개가 짓는 소리가 표범 같다. 시골 마을에서 밤방아 켜는데 다시 드문드문 나는 종소리와 더불어 서로 어울렸다.

이때에 홀로 앉았노라니 심부름 하는 아이가 묵묵히 있다. 옛날 친한 이들을 많이 생각 하는 것 같았다.

아이의 손을 끌고서 같이 시를 짓고 오솔길 걸어서 맑게 흐르는 물을 굽어보았다.

### 3. 누정 명칭

#### (1) 청(廳)

『광운(廣韻)』에는 “청(廳)은 옥(屋)이다”라고 했고 『집운(集韻)』에는 “옛날에는 차관이 거쳐하는 곳을 일러 청사라고 했는데 뒷말을 줄여 청이라 하여 의미가 보다 넓어졌다.” “청사는 사건의 송사를 받는 곳이다.” 라고 하였으며 『석명(釋名). 석궁(釋宮)』에는 “청은 청사다”라고 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건물을 뜻했다. 청은 고급의 원림에서 대부분 연회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거나 나무와 꽃을 보고 즐기는 장소로서 공공건축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청의 건축면적은 비교적 클 수밖에 없었다.

#### (2) 당(堂)

당은 원래 흙으로 쌓은 높은 대를 말한다



『석명(釋名). 석궁(釋宮)』에 이르기를 “당은 당당함인데 그 모습이 높이 드러나는 것이다.”, “당은 마땅함인데 바로 밝은 쪽을 향하여 놓여져 있음을 이른다.” 라고 하여 여러 채로 이루어진 건축군 가운데 정남향에 위치한 주된 건축물로 시야가 탁 트이고 밝은 대청을 뜻한다.

황가원림에서는 거주용의 건물을 당이라고 하는데 유행에 따라 사회의 대다수 문인 사대부 등도 자신이 기거하는 집의 중심되는 건물에 당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원래 당과 청은 관습적으로 규모에 따라 큰 것을 청, 작은 것을 당이라 하고 평면으로 보면 청은 대부분 방형의 규격화 형상을 하고 있으며 당은 변화가 자유롭다. 두 글자를 붙여서 청당이라는 한 단어로 주로 사용한다.

### (3) 관(館)

관의 하나의 의미는 객사이며 옛날에 공공기관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건축물이며, 오늘날 여관이 여기에서 유래한다. 또 다른 의미는 가옥 즉 옥사(屋舍)이다.

### (4) 정(亭)

초기에는 정자가 있으면 화원(花園)이라고 했고 원림을 원정(園亭), 혹은 정원(亭園)이라 불렀다.

『석명(釋名). 석궁(釋宮)』에는 “정은 사람들이 머물러 모이는 것이고, 전하러 들리는 곳이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다 가고 후인이 다시 와서 전갈을 서로 전하는데 항상 머무는 주인은 없다”라고 하였다. 정은 비교적 일찍부터 원림에 이용되었다. 원림에서의 정은 휴식을 취하고 풍경을 감상하는 건축으로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크기가 동일하지 않고 평면의 형식이 다양하며 지형에 따라서 조성되었다. 평면의 형식은 원형, 방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꽃모양도 있다. 그리고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계정(溪亭), 하정(河亭), 산정(山亭), 교정(橋亭)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5) 대(臺)

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조망해 보는 일종의 토목 구조물이다. 대를 쌓는 것이 가장 성행한 시기는 진한시대이다.

### (6) 누(樓)

『설문』에 “중첩하여 지은 집이다.” 라 하며 2층 이상의 중층으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7) 각(閣)

루와 유사한 건축물이며 대부분 2층이고 사방에 창을 설치했으며 일반적으로 책을 보관하거나 경치를 감상하는 곳이다. 때로는 큰 불상을 모시기도 했다. 『옥편』에 의하면 “각은 루다”라고 하여 각과 루는 동일한 의미를 보이며 모두 간란식(干蘭式) (원두막처럼 바닥을 지상에서 일정하게 띄운 구조) 건축유형과 동일한 형식이다. 그러나 건축물 매스의 볼륨이 비교적 간단하고 호리호리한 것을 루라고 불렀고 이와 반대로 매스의 볼륨이 집중적이고 비교적 복잡한 것을 각이라고 했다. 후대에는 각과 루 사이에 구분이 없이 누각으로 통용되었다.

(8) 사(臺)

설문에 “대에 집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며 상대와 주대에는 고대(高臺) 위에 지은 집의 형식을 가리켰다. 초기에는 대사(臺榭), 대사(臺射)라 하여 사방에 벽이 없는 건물로서 군사사열이나 연설을 하기 위한 곳으로 사용되다가 후에 원림 안에 만들어지면서 유람과 오락을 위한 관상건축의 유형이 되었다. 특히 『석명』의 해석처럼 일종의 차경(借景) 건축으로 물가에 지어지고 자유로운 형식을 취했다.

#### 4. 낙양명원기의 경관 구조물

(1) 누정

**부정공원(富鄭公園)** : 유람하는 사람들은 다만 동쪽으로 ‘탐춘정(探春亭)’을 나와 ‘사경당(四景堂)’에 오르면 온 정원의 경승(景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남쪽으로 ‘통진교(通津橋)’를 건너 ‘방류정(方流亭)’으로 올라가 ‘자군당(紫筠堂)’을 바라보고 돌아온다. 오른쪽으로 꽃과 나무를 돌아 백 보 남짓 가서 ‘음월정(蔭樾亭)’과 ‘상유대(賞幽臺)’를 지나 ‘중파헌(重波軒)’에 이르러 그친다.

네 동의 북쪽을 지나면 정자가 다섯 곳이 대나무 가운데 섞여서 늘어져 있는데, ‘총옥(叢玉)’, ‘과풍(披風)’, ‘의람(漪嵐)’, ‘내죽(夾竹)’, ‘겸산(兼山)’이라 한다. 조금 남쪽에는 ‘매대(梅臺)’가 있고, 또 남쪽에 ‘천광대(天光臺)’가 있는데, 대가 대나무 끝으로 솟아있다. 동(洞)의 남쪽을 따라 가다가 동쪽으로 돌아오면 ‘와운당(臥雲堂)’이 있는데, 당은 ‘사경당(四景堂)’과 나란히 있다.

**동씨서원(董氏西園)** : 남문(南門)으로 들어가면 당(堂)과 서로 바라보이는 것이 셋이 있는데, 조금 서쪽의 한 당은 큰 연못 사이에 있고, 작은 다리를 지나면 높다란 대가 하나 있다. 또 서쪽 한 당은 대나무가 둘러싸고 있는데, 가운데는 석부용(石芙蓉)이 있고 물이 그 꽃의 사이에서 솟아 나온다.

**동씨동원(董氏東園)** : 사람이 거처할 만한 당이 있는데 동씨가 번성할 때에 가무(歌舞)를 즐기며 놀다가 취하여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수십일 동안 숙박했다고 한다.

남쪽에는 무너진 집터가 있는데 다만 ‘유배정(流杯亭)’과 ‘촌벽정(寸碧亭)’, 두 정자는 아직도 완전하다. 서쪽에는 큰 연못이 있고 가운데 당을 지어 ‘함벽(含碧)’이라 표방했다.

**환계(環溪)** : ‘결화정(潔華亭)’이라 한 것은 남쪽으로 연못에 닿아있고 연못 좌우로 끼고 북쪽으로 ‘양사(涼榭)’를 지나면 다시 큰 연못을 둘러싸 주위가 마치 고리와 같은 까닭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사(榭)의 남쪽에는 ‘다경루(多景樓)’가 있는데 남쪽을 바라보면, 숭고(崇高), 소실(小室), 용문(龍門), 대곡(大谷) 등 층층의 봉우리가 파름하게 모두 앞에서 기이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사의 북쪽에는 ‘풍월대(風月臺)’가 있는데, 북쪽을 바라보면 수당(隋唐)의 궁궐과 누전(樓殿), 수많은 문호(門戶)들이 아름답게 둘러싸고 십여 리를 뻗어있다.

**유시원(劉氏園)** : 『목경(木經)』을 아는 사람이 보고 말하기를, “근세에 건물을 짓는 사람은 대체로 높다랗게 세우려는 데에만 힘쓰는 까닭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쉽게 허물어진다. 오직 이 당은 바로 법과 합당하다.” 하였다

서남(西南)에 대(臺) 일구(一區)가 있는데 더욱 공교(工巧)롭고 정치(精緻)하니 사방이 십여 장(丈) 정도이다. 누(樓)가 비껴있고 당(堂)이 늘어서 있는데 광무(廊廡)가 빙돌아 있고 난순(闌楯)이 주위에 닿아 있으며...

**총춘원(叢春園)** : 큰 정자는 ‘총춘정(叢春亭)’이고, 높은 정자는 ‘선춘정(先春亭)’이다. ‘총춘정’은 다미(荼蘼)의 등굴 위로 솟아있어 북쪽으로 낙수(洛水)를 바라볼 수 있으니...

**묘사원(苗帥園)** : 정원 북쪽 편에 당을 짓고 있다... 그 남쪽 편에 정자를 짓고 있다... 지금 짓는 정자는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못에는 연꽃이 자라기에 적당한데 지금 수현(水軒)을 짓고 판자(板子)가 물위로 나와 있다. 수현 건너편에는 교정(橋亭)이 있

는데 제도가 매우 웅장하고 사치스럽지만 오히려 왕승상의 예전 정원만 못하다. 물 동편은 바로 용도각(龍圖閣)<sup>1)</sup> 조씨(趙氏)가 사들여 또한 그 가운데 집과 정원, 연못을 크게 짓고 있다. 조금 북쪽에는 ‘곁옥택(邨廓陌)’이라 하는데 이곳에는 일곱 승상의 저택(邸宅)이 늘어서 있다.

**이씨인풍원(李氏仁豊園)** : 그 가운데 ‘사병(四井)’, ‘영취(迎翠)’, ‘탁영(濯纓)’, ‘관덕(觀德)’, ‘초연(超然)’ 등 다섯 정자가 있다.

**송도(松島)** : 정자와 연못이 우거졌는데 그 곁에 대나무를 심었다. 남쪽에는 대(臺)를 쌓고 북쪽에는 당(堂)을 지었는데, 동북쪽에는 ‘도원(道院)’이라 했다. 또 동쪽에 ‘연못’이 있고, 연못 앞뒤로 정자가 내려 보고 있다.

**동원(東園)** : ‘연영(淵映)’과 ‘전수(灑水)’ 두 당(堂)은 물 가운데 있고, ‘상부(湘膚)’와 ‘약포(藥圃)’ 두 당의 사이에는 수석(水石)이 늘어서 있다.

**수북호씨원(水北胡氏園)** : 누대에서 사방을 바라보면 백여 리를 다할 수 있는데, 그 사이를 빙 둘러 감고 수풀의 나무가 울창하고 연무(烟霧)와 구름이 가리고 비치니, 높은 누각과 굽은 정자가 때로 숨었다가 때로 나타나 화공(畫工)으로 하여금 생각을 골똘히 해도 그럴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완월대(玩月臺)’라 이름했다.

암자(庵子)가 소나무와 회나무, 칠평굴 가운데 있어서 곁의 창을 열면 누대의 조망(眺望)이 눈앞에 모두 펼쳐지고, 소나무와 회나무를 피하고 칠평굴을 건너 올리면 환히 사람의 눈과 마주치니, ‘학고암(學古庵)’이라 이름...

**대자사원(大字寺園)** :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무 당(堂)에 아무 나무가 있고, 아무 정자에 아무 나무가 있었으니 지금도 오히려 남아 있다고 하는데, ‘당(堂)’이나 ‘정(亭)’이라 한 것은 다시는 비슷한 것이 없다.

**독락원(獨樂園)** : ‘독서당(讀書堂)’이라는 것은 수십 개의 서까래로 지은 집이고, ‘화정(花亭)’은 더욱 작다. ‘농수(弄水)’와 ‘종죽(種竹)’이라는 헌(軒)은 더욱 작고, ‘견산대(見山臺)’는 높이가 한 발을 넘지 않는다. ‘조어암(釣魚庵)’과 ‘채약포(采藥圃)’는 특히

1) 龍圖閣 : 宋나라 대종 상부 연간에 세운 官府 이름. 각 위에 太宗의 御書文集과 譜錄과 寶物類를 備置하고 學士와 直學士·待制·直閣學士 등의 官制를 설립했다.

대나무 끝가지와 우거진 덩굴 풀을 엮었을 뿐이다.

**호원(湖園)** : 낙양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포의 승경(勝景)을 서로 견할 수 없는 것이 여섯 가지이니, 큰 것만을 힘쓰면 그윽하고 깊은 멋이 적고, 사람의 힘이 지나치면 옛스런 멋이 적으며, 물과 샘이 많으면 조망(眺望)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 여섯 가지를 겸한 것은 오직 ‘호원(湖園)’뿐이다.”

정원 가운데 호수가 있고 호수 가운데 당(堂)이 있으니, ‘백화주(百花洲)’라 하는데 이름은 대개 오래되었지만 당은 산뜻하다. 호수 북쪽의 큰 당은 ‘사병당(四井堂)’이라 하니, 이름은 부족하나 빼어난 경치는 남음이 있다. 사방으로 이어져 동서의 지름길에 닿는 것은 ‘계당(桂堂)’이다. 끊은 듯이 호수의 오른쪽으로 나온 것은 ‘영휘정(迎暉亭)’이다. 비껴있는 연못을 지나 숲 덩굴을 헤치고 굽은 지름길을 따라 간 뒤에 이른 곳은 ‘매대(梅臺)’와 ‘지지암(知止庵)’이다. 대나무 지름길에서 초연히 바라보이고 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환취정(環翠亭)’이다. 아득하고 깊숙하여 오히려 번성한 꽃들을 차지하고 앞에는 연못의 정자의 빼어남을 웅거한 것은 ‘취월헌(翠樾軒)’이다.

**여문목원(呂文穆園)** : 여문목의 정원은 이수(池)의 상류에 있는데 나무가 무성하고 대나무가 많다. 정자가 셋이 있으니, 하나는 연못 가운데 있고, 둘은 연못 밖에 있는데, 다리를 연못 위에 걸쳐 서로 연결시켰다.

## (2) 동굴

**부정공원(富鄭公園)** : 곧바로 북쪽으로 달려 ‘토균동(土筠洞)’을 지나면 이제부터 큰 대나무 숲 속으로 들어간다. 무릇 동(洞)이라 하는 것은 모두 한 발 남짓한 대나무를 베어 내고 물을 끌어당겨 도랑을 뚫어 그 위로 길을 내었다. 비껴가면 동이 하나 있는데 ‘토균’이라 하고, 세로로 가면 동이 셋인데 ‘수균(水筠)’, ‘석균(石筠)’, ‘사균(榭筠)’이라 한다.

## (3) 식물

**부정공원(富鄭公園)** : 네 동의 북쪽을 지나면 정자가 다섯 곳이 대나무 가운데 섞여서 늘어져 있는데...

**중씨서원(董氏西園)** : 서쪽 한 당은 대나무가 둘러싸고 있는데...

**중씨동원(董氏東園)** : 문에 들어가면 십위(十圍)쯤 되는 향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작아서 술방울 같지만 달콤한 향기는 더욱 좋다.

**환계(環溪)** : 정원 가운데 소나무와 회(檜)나무, 꽃과 나무 천여 그루를 심었는데, 모두 품종별로 늘어서 있다.

**총춘원(叢春園)** : 교목이 백백하니, 오동과 가래, 회와 잣나무들이 모두 행렬을 이루고 있다.

**천왕원화원자(天王院花園子)** : 모란 수십만 그루

**귀인원(歸仁園)** : 북쪽에는 모단(牡丹)과 작약(芍藥)이 천 그루 있고, 가운데는 대나무가 천무(千畝)쯤 있으며, 남쪽으로는 복숭아와 오얏이 눈에 가득 들어온다. 당나라 승상(丞相) 우승유(牛僧儒)<sup>2)</sup>의 정원은 칠리 썸이 회(檜)나무였다고 하니, 아마 고목(古木)인 듯하다.

**묘사원(苗帥園)** : 정원에는 칠엽(七葉)이라는 두 나무가 마주하고 있는데 높이가 백척(百尺)정도나 되어 봄과 여름에 바라보면 마치 산과 같다... 대나무 만여 그루는 모두 크기가 두, 세 위(圍)에 찰 정도인데, 성긴 대나무와 낭간(琅玕)은 마치 벽옥(碧玉) 서까래 같다... 큰 소나무 일곱 그루가 있으니, 지금 물을 끌어 둘러쌌다. 연못에는 연꽃이 자라기에 적당한데...

**이씨인풍원(李氏仁豐園)** : 복숭아, 오얏, 매화, 살구, 연꽃, 국화 등이 각기 수십 종이 있고, 모란과 작약은 백여 종에 달한다. 또 먼 지방의 기이한 화훼(花卉), 예컨대 자란(紫蘭), 말리(茉莉), 경화(瓊花), 산다(山茶) 등의 따위는 심기조차 어렵다고 할 정도이다. 다만 낙양(洛陽)에 심은 것은 그 토산(土産)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낙중(洛中)의 원포(園圃)에 꽃과 나무가 천여 종에 이른다. ‘감로원(甘露園)’의 동쪽에 있는 ‘이씨원(李氏園)’은 사람의 힘으로 아주 잘 가꾸어 낙중(洛中)의 꽃과 나무가 없는 것이 없다.

**송도(松島)** :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회나무, 향나무는 모두 아름다운 나무들이다. 그런데 낙양에서는 유독 향나무만 좋아하고 소나무를 공경한다. ‘송도’는 수백 년 된 소나무이다. 그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쌍송(雙松)은 더욱 기이하다.

2) 牛僧儒(778-847) : 字는 思黯, 進士시에 及第하였다. 賢良方正對策으로 時政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宰臣을 피하지 않아 李吉甫의 노여움을 샀다. 伊闕尉에 調用되고 穆宗 초에는 御史中丞으로 옮겨 법률에 따라 不法을 다스리니 内外가 맑고 엄숙하였다. 이후 戶部侍郎 등 여러 벼슬을 거쳤으나 四川節度使 李德裕와 不和로 會昌 초에 太子太保로 옮겼다가 循州司戶로 左遷되었다. 諡號는 文簡 또는 文貞, 저서에 『玄怪錄』10권이 있다. 『舊唐書』172권과 『新唐書』174권.

정자와 연못이 우거졌는데 그 곁에 대나무를 심었다.

**수북호씨원(水北胡氏園)** : 암자(庵子)가 소나무와 회나무, 칩덩굴 가운데 있어서 곁의 창을 열면 누대의 조망이 눈앞에 모두 펼쳐지고, 소나무와 회나무를 피하고 칩덩굴을 걷어 올리면 환히 사람의 눈과 마주치니...

**대자사원(大字寺園)** : 백낙천이 이르기를, “나는 사저(私邸)가 이도방(履道坊)에 있는데 오무(五畝)의 주택과 십무(十畝)의 정원에 하나의 연못과 대나무 천 그루가 있다.”

**여문목원(呂文穆園)** : 여문목의 정원은 이수(伊水)의 상류에 있는데 나무가 무성하고 대나무가 많다.

(4) 연못과 수계

**부정공원(富鄭公園)** : 남북 좌우 두 산이 등지고 누르며 물길과 통하니, 이곳에 앉으면 한 정원의 승경(勝景)을 누릴 수 있다.

**중씨동원(董氏東園)** : 서쪽에는 큰 연못이 있고 가운데 당을 지어...

물이 사방에서 연못 가운데로 쏟아져 음기가 나오는 까닭으로 아침저녁에는 나르는 폭포 같지만 연못이 넘치지 않는다.

술에 아주 취한 낙양 사람이 그 당에 달려 올라갔다가 문득 술이 깬 까닭으로 세상에서는 ‘성주지(醒酒池)’라 지목했다.

**환계(環溪)** : ‘결화정(潔華亭)’이라 한 것은 남쪽으로 연못에 닿아있고 연못 좌우로 끼고 북쪽으로 ‘양사(涼榭)’를 지나면 다시 큰 연못을 둘러싸 주위가 마치 고리와 같은 까닭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총춘원(叢春園)** : ‘천진교(天津橋)’는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곧 힘써 그 노기(怒氣)를 띠고 흐르는 물을 모아 홍하(洪下)로 받아들이니 홍하는 모두 큰 돌이다. 밑은 물과 다투어 뿜어내고 부딪혀 서리와 눈이 되니 소리가 수십 리까지 들린다.

**묘사원(苗帥園)** : 동쪽에는 물이 있는데 이수(伊水)에서부터 갈라져 오는 것으로 십석(十石) 무게의 배를 띄울 정도이다. 지금 짓는 정자는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큰 소나무 일곱 그루가 있으니, 지금 물을 끌어 둘러쌌다. 연못에는 연꽃이 자라기에 적당한데...

**송도(松島) :** 정자와 연못이 우거졌는데...

동쪽에 ‘연못이 있고, 연못 앞뒤로 정자가 내려보고 있다.

동편에서 큰 도랑물을 정원 가운데로 끌어들여 맑은 샘과 가는 물이 졸졸 흘러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동원(東園) :** 문로공(文潞公) 문언박(文彦博)의 ‘동원(東園)’은 ... 물이 아득하며 매우 넓어 배를 띄우고 노니는 사람들이 강호(江湖)의 사이와 같다.

‘연영(淵映)’과 ‘전수(灑水)’ 두 당(堂)은 물 가운데 있고, ‘상부(湘膚)’와 ‘약포(藥圃)’ 두 당의 사이에는 수석(水石)이 늘어서 있다.

**자금대장씨원(紫金臺張氏園) :** 장씨원도 물을 둘러싸고...

**대자사원(大字寺園) :** 대자사원은 당나라 백낙천(白樂天)<sup>3)</sup>의 정원이다. 백낙천이 이르기를, “하나의 연못과 대나무 천 그루가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호원(湖園) :** 정원 가운데 호수가 있고 호수 가운데 당(堂)이 있으니, ‘백화주(百花洲)’라 하는데 이름은 대개 오래되었지만 당은 산뜻하다. 호수 북쪽의 큰 당은 ‘사병당(四井堂)’이라 하니, 이름은 부족하나 빼어난 경치는 남음이 있다... 끊은 듯이 호수의 오른쪽으로 나온 것은 ‘영휘정(迎暉亭)’이다. 비껴있는 연못을 지나...

**여문목원(呂文穆園) :** 여문목의 정원은 이수의 상류에 있는데... 정자가 셋이 있으니, 하나는 연못 가운데 있고, 둘은 연못 밖에 있는데, 다리를 연못 위에 걸쳐 서로 연결시켰다.

낙양에는 또 정원과 연못 가운데 한 가지 특별히 일컬을 만한 명물이 있다. 예컨대, ‘대은장(大隱莊)’의 매화(梅花)와 양사랑(楊侍郎)의 정원에 있는 ‘유배(流杯)’와 ‘사자원(師子園)’의 사자(師子)(獅子와 같음)가 이런 것이다.

---

3) 白樂天(772-846) : 唐나라의 문장가인 백거이(白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 만년에는 醉吟先生·香山居士라 했다. 元和 연간에 翰林學士와 左贊善大夫를 역임했으나 權門勢家の 反感으로 江州司馬로 左遷되었다. 이곳에서 「琵琶行」을 지었으며, 뒤에 杭州刺史와 蘇州刺史를 거쳐 刑部尚書를 역임하였다. 그는 문장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여 많은 諷諭詩를 지었다. 저서에 『白氏長慶集』이 있다.



### Ⅲ. 맺음말

당대(唐代)의 출토유물인 명기를 통해서 사각정, 팔각정, 석가산, 연못 등의 조영기법, 조영양식을 고찰할 수 있고, 기문(記文) 등의 고문헌을 통해서 경관 구조물의 조영기법과 그것을 즐겼던 풍류까지 읽을 수 있으며, 낙양명원기를 통해서 석가산, 연못, 누정, 화목 등의 경관 구조물의 배치, 구성, 조영기법 등을 고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토유물과 문헌을 중심으로 당대의 민간 특히 귀족 정원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산수경관인 가산과 연못이 정원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 누정을 짓고 화목을 심었다. 가산은 “치석첩산(置石疊山)하고, 동굴을 만들었고, 명기의 석가산은 산지산세(山池山勢)는 험준, 층만첩장(層巒疊嶂), 녹색이 깔린 자리와 같고, 새들이 혹은 산간에서 노래하고, 연못 호반에서 물을 마신다.” 라고 표현되었다.

연못은 착지인수(鑿池引水)하고 수계가 발달하였으며, 누정 건물로는 청(廳), 당(堂), 관(館), 정(亭), 대(臺), 누(樓), 각(閣), 사(榭) 등이 있다.

조경 식물로는 대나무, 연꽃, 모란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향나무, 소나무, 회, 잣나무, 전나무, 오동, 가래, 복숭아, 오얏, 매화, 살구, 국화, 칙덩쿨 등을 식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중국 당대의 원림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뛰어난 원림 양식으로 원림발달의 전성기를 구가하였고, 문화교섭에 의해 동시대의 통일신라의 민간 특히 귀족의 주택 정원도 사절유택(四節遊宅)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조경 발달사에서 전성기에 해당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Abstract

### **Research of private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Tang Era in ancient China**

*-based on excavated excellent articles and a book  
<洛陽名園記> called Nakyangmyungwonki-*

*Park, Kyung-Ja*

Through the excavated excellent articles of the Tang era, we have considered the building techniques and styles of a square pavilion, an octagonal pavilion, a miniature hill, a pond, etc., could read building techniques of the scenic structures on ancient literatures including records and additionally about their poetical life at that time and inquired into the arrangement, structure, building techniques, etc. of a miniature hill, a pond, a pavilion, a flowerplant, etc., on Nakyangmyungwonki

Thus, under the research on the private landscape architecture, especially the nobility gardening, around excavated excellent articles and literatures,

'A miniature hill(假山) and a pond for landscaping views formed the center of a garden, and additionally a pavilion was built and flowerplants were set. The miniature hill of laying stones and having a carven, steeping, stratifying, looking like dyed green and birds' singing among hills and eating water on the lakeshore... ' was expressed.

The pond of digging in the ground and conducting water had its water system

developed. There were several kinds of pavilions such as 廳, 堂, 館, 亭, 臺, 樓, 閣, 榭, etc. As examples of landscaping plants, there were a bamboo, a lotus flower, a peony, aromatic trees a pine, a Korean spindle tree, a big cone pine, an empress tree, a wild walnut, a peach, a plum, a Japanese apricot tree, an apricot tree, a chrysanthemum, arrowroot vines, etc.

Thus, the garden of the Tang era, abundant, diverse and excellent, enjoyed the prime of the period of prosperity. Due to cultural exchange, it is supposed that the period of united Shilla of the same age would meet with the period of prosperity in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Korea landscape, based on the nobility garden system '4 different dwelling-houses every season on a record "四節游宅"'.

keyword : Tang era, Nakyangmyungwonki, A miniature hill(假山), a pond, united Shilla